

두란노 소식

두란노 교회를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 5일(토), 6일(주일), 7일(월, Civic holiday)는 2박 3일간 전가족 여름수양회를 “소망기도원”에서 가지게 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기대함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셀별로 참석자와 초청자를 미리 파악해주시고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2. 수요 성경 공부는 민수기 16장부터 공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동참이 있길 바랍니다.
3. 토요일 새벽 예배는 두란노 전 가족 새벽 예배로 드립니다.
수양회준비를 위해 기도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4. 8월 2(수), 3(목), 4(금) 3일간, 2017 여름 수양회와 새 성전을 위한 작정 기도회를 갖습니다.
저녁 8시부터 찬양과 말씀을 통해 시작하며 1시간동안 전심으로 2개의 제목을 갖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많은 동참이 있길 바랍니다. 8월 2일 수요 성경 공부는 작정 기도 시간으로 대체합니다.
5. 새로운 예배 장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교회 홈페이지 www.durannochurch.net 와 유튜브채널 “duranno church”(토론토 두란노 교회)가 전도의 통로가 되도록 활용해 주시고 특별히, 구글에 등록된 “토론토 두란노교회”에 좋은 사진도 올려 주시고, 받으신 은혜도 많이 나눌 수 있도록 참여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주일 오후 2시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오후 8:00

신앙 상담
647.980.5791
89 Finch W.
North york ON, M2NH6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는 _____

두란노 교회

D / U / R / A / N / N / O C H U R C H

JULY 16, 2017



섬김의 손길

담임목사 이강화 목사
전도사 조선희 전도사
찬양팀 인도 | 구수진 사모, 강지연, 김샬리
연주 | 김동해, 오준성, 윤유진, 이웅희
기술 | 이기훈, 한정훈, 박지은

대표기도자 23일 문정아 / 30일 황우경 / 8월 6일 김샬리 / 13일 박연숙

주일예배 순서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 구수진 사모)
대표 기도	-----	이명순 집사
헌금	-----	
성경봉독	-----	누가복음 4:1~8
말씀선포	-----	“영권을 회복하라”
축도	-----	이강화 목사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샘

섬세하신 하나님

170706 주일예배
마태복음 10:29~31

믿음의 히브리어 원어는 '에무나'인데 그 어근은 동사 '아만(אמן)'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지속하다', '(팔로)지탱하다', '믿다', '성실하다', '확실하다', '신뢰할 만 하다' 등의 의미입니다. '아멘'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 지탱하는 것이며 그 안에 지속적으로 평강가운데 머무르는 것입니다. 아만(אמן)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이미지가 있는데 엄마 품에서 젖을 만족하게 먹은 아기가 잠을 곤히 자고 있는 모습을 떠올려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모든 것을 맡기고 평강가운데 지속적으로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믿음의 가장 큰 방해는 다름 아닌 노파심, 걱정, 근심, 염려, 조급함 등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평안히 머무르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약 없이 기다려야하는 문제 속에서 보다 구체적이길 바라는 갈망과 조급함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성취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인정할 수 있어야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이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내세를 더 소망하며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보여지는 지금 문제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건지에서 볼 때 믿음을 온전히 갖기란 쉽지가 않고,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믿음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전도 여행으로 파송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훈련이었습니다. 이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을 말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하신 말만 믿고 가야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자는 곳 다 공급하심을 말만 믿고 가야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아무 것도 없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공급을 오로지 믿고 가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훈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 9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10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답답합니다. 아무 것도 없이 가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섬세한 공급하심을 믿고 가라니... 그런데, 이걸 경험한 제자들의 믿음은 엄청나게 성장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곤란한 상황, 핍박, 죽

음의 상황에 이를 수 있음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우실 것임을 시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현실 속에서 현실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 걸고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할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0: 28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목숨까지도 신실하시고 섬세하신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을 믿으며 나아가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 29 참새 두 마리가 한 앻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지라 30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31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먹고사는 문제도, 어려움의 문제도, 심지어 죽음의 문제도 다 맡기고 하나님을 오직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는 섬세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몸의 사정을 다 아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지키시는 섬세하신 하나님. 참 새 두 마리가 죽고 사는 문제까지 디테일하게 체크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어떻게 더 섬세하실 수 있을까요? 머리털을 세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털 숫자는 시간시간 바뀝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주 섬세하게 그리고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알고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 30 오늘 앻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꽃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31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최근 너무 크게 은혜 받은 말씀이 있는데 에스더서입니다. 하만이라는 페르시아의 절대 권력자가 왕에게 이미 조서를 받아서 모르드개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을 학살할 계획을 세웠고 이미 반포한 상황이었습니다. 에스더 4장에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개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이 금식하며 도우실 하나님께 간절히 그들의 위급한 상황을 기도로서 아뢰었습니 다. 그런데, 에스더 6장에서는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섬세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는 지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 6: 1 그 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질 않아요. 이것도 희한한 일입니다. 잠이 안오면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잖아 요? 잠이 안온다고 한 일이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도록 한 일이었습니다. 2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박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어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개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역대 일기가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나 구체적으로 사건들을 다 적은거 보니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던 페르시아의 역대 일기는 상당히 많은 분량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역대 일기가 한권은 아니었을 것이며 그 많은 권수 중에 하필 모르드개 이야기가 나온 그 책을 가져와서 읽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3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준귀와 관작을 모르드개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죽곤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모르드개 이야기가 나오니까 왕이 갑자기 관심을 갖습니다. 자다가 그냥 지나칠수도 있는데, 그 이야기가 하필 왕의 귀에 딱 걸리는 것입니다. 지나갈수도 있는 문제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슨 포상을 했는지를 물었을 때 아무것도 없었다는 애길 듣습니다. 4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미참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개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론지라 왕이 갑자기 밖에 사람을 불렀는데, 마침 하만이 모르드개를 죽여야하니까 초조해서 그걸 컨펌하려고 밖에 온 것입니다. 상당히 늦은 시간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그때 하필 하만도 그 밤에 안자고 있다가 왕이 물어볼 그 철야에 마침 밖에 도착한 것입니다. 우연입니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이토록 섬세하게 상황과 타이밍, 그리고 놀라운 심리와 커백션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5 죽곤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6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준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준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이때 왕의 질문이 걸작입니다. 왕이 그렇게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아닐텐데, 그때는 놀라운 지혜가 발동합니다. 모르드개라는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하만에게 혼돈을 주는 질문을 합니다. “왕이 준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겠냐?”라고 물었을 때, 하만 스스로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모르드개를 높이는 제안을 하만 스스로가 말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깨알같은 섬세한 도우심과 공급하심의 손길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겹고 앞을 알 수 없는 이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붙들어야할 하나님은 섬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할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며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삶가운데 인정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할 것입니다. 할렐루야!